

사회

시내버스 카메라 단속 첫날... 적발건수 절반으로 '뚝'

무질서 광주, 운전질서 잡히나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버스 카메라에 찍힐라 조심해라.”

광주에서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식으로 실시된 1일, 일단 시범실시 기간보다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 운전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7시 8분 광주시 서구 내 방동 버스전용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38호×××호 승용차가 순환 01번 시내버스 단속카메라에 포착됐다.

첫 단속 이후 22분 뒤인 7시30분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던 이 승용차는 뒤 따라온 순환 01번 시내버스의 카메라에 다시 찍혔다. 규정(불법 주정차)에 따라 이 차량운전자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비슷한 시간 동구 금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버젓이 달리던 51리××

×호 승용차의 위반 장면이 담긴 사진 7장이 첨단 09번 시내버스에서 광주시 버스전용차로 통제센터로 전송됐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5만원의 과태료(버스전용차로위반)를 내야 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시의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등 단속'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어 들었다. 위반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단속 표지판 부착, 시범 단속 등을 통해 단속 안내를 해 도로 주변 가게 주인이나 주민 등이 미리 조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버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285대,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왼쪽)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위반 4대 등 모두 289대였다. 시범단속 기간이었던 지난달 31일 같은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629대에 달했다는 것에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7시까지 광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순환 01번, 진원 07번, 첨단 09번, 봉선 37번 4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 카메라에서 무선으로 보내온 단속 정보를 분석한 뒤 각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침 출근시간대의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계도 및 단속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1년간 우선 10대로 운영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평일 오후

김용환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순직

中 투자유치 출장 호텔에서 쓰러져

강운태시장 애도 성명

중국 투자유치 출장에 나섰던 김용환(55·사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이 파로로 순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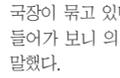
광주시는 1일 “김 국장이 이날 새벽 4시 숙소인 중국 안후이(安徽)성 텐창시 한 호텔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병원 관계자는 파로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24일 지역 기업인과 직원 등 14명과 함께 출국해 광주 우 무역박람회 참가해 기가 솔라(태양광 셀 모듈) 생산업체 유치가 나섰다. 이후 김 국장은 직원 1명, 기업체 1곳 대표 등을 이끌고 내륙 중소도시인 텐창을 찾아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텐창이 내



륙 깊숙한 곳에 있어 1일 귀국하기 위해 오전 4시 투자유치단 일행과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아 김 국장이 묵고 있던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말했다.



국장이 묵고 있던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진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1975년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영사업과장, 경제정책과장, 첨단산업과장, 투자협력관,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 대표 산업인 광산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첨단산업과장 재직 시절 광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민선 5기 들어 경제산업정책실장과 투자고용국장을 지낸 그는 ‘장보고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해외 투자유치 확대 기조에 맞춰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며 투자유치를 진두지휘했다.

지난 6월 유럽에 이어 8월16일부터 6일간 영국과 독일을 방문한 그는 광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다시 중국 출장 길에 올랐다.

광주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김 국장의 시신 운구 등 장례 절차를 위해 문인 기획조정실장, 김선홍 국제전문대사를 텐창에 급파했다.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들은 1일 애도성명을 내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치열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함께 잘사는 광주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를 보낸 고 김용환 국장, 그를 떠나 보내는 6000여 공직자들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선미(54)씨와 2남이 있다. 시는 유족과 협의해 광주시 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예인선 특혜 배정 43억 챙겨

순천지청, 예선업체서 리베이트 해운대리점 대표 구속

회사자금 19억 횡령도

광주지청 순천지청은 1일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해운대리점 대표 이사 A(52)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부하 직원(불구속)과 공모해 200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예선업체 등의 지정권을 선사로부터 위탁받아 행사하면서 이들 업체 등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약 43억원의 리베

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해운대리점 대표 B(47)씨도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장인과 장모를 회사 직원으로 둔 채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2억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해운대리점 대표 C(61)씨는 약 19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회사 공금 1억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운대리점이 선사를 대신해 선박의 입·출항, 출입국 관리는 물론 도선, 예선 등 항만 운영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을 악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사 대리점 20여곳, 예선사 12곳 등이 활동하는 광양항에서는 그동안 선박 입출항시 예인선을 투입할때 선사 대리점이 예인선 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예선업체로부터 예인비 1건당 10~30%를 때는 비리가 관행화됐다.

/동부취재본부=김종은기자 ejkim@

여친 어머니 살해 후 투신 자살

전주서 20대 男 연상女 교제 반대 양심

지난 31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A(23)씨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8)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어머니(5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구례 섬진강서 30대 실종

1일 새벽 2시10분께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섬진강에서 수영을 하던 이모(34)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섬진강으로 친구들과 휴가를 온 것으로

A씨는 이날 교제를 허락받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는 B씨의 어머니에게 양심을 품고 범행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정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B씨에게 “어머니를 살해했다. 미안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지점 수심이 4m나 되는데다, 피아공 계곡 물줄기와 섬진강이 만나는 지점까지 소용돌이가 치고 물살이 거세 이씨가 수영 미숙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나를 해고해?”- 시청명판 때 연못 던져



○남원경찰은 1일 시청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청 명판을 때어내 연못에 던진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

○이씨는 지난 31일 새벽 1시30분께 남원시 도동동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남원시청 명판을 발로 차 때어내 달아난 뒤 2km가량 떨어진 연못에 명판을 버린 혐의.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씨는 공무원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등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초 시청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해고당한 것이 억울해 명판을 발로 찼는데 떨어질 줄 몰랐다”며 “겁이 나 명판을 연못에 버렸다”고 뒤늦은 후회.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고사리송 송편 빚기

1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송편빚기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맛있는 송편을 빚은 뒤 자신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보이며 자랑하고 있다.

목포 요양병원 화재 입원 환자 대피 소동

1일 새벽 1시께 목포시 대양동 목요양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층 입원실 10㎡를 태우고 20여분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입원 환자 김모(82)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층에 있던 환자 10명은 간호사 등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대피했다.

불이 나자 당직 근무자가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진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층 입원실 내 소파에서 처음 불이 일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성기자 yousou@

'알레르기' 팬티스타킹

편의점·대형마트서 판매 4개 제품 유발 염료 검출

여성들이 애용하는 팬티스타킹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염료가 검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팬티스타킹 19개 제품을 구입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산염료 20종에 대한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성 분산염료가 나왔다.

에스테르 섬유나 아세테이트 섬유 등의 합성염료의 염색에 사용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성 염료가 많으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남영비비안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남영비비안의 'only you by VIVIEN' 중 커피색 고탄력 팬티스타킹과 블랙·커피색 하이퍼스트 고탄력 팬티스타킹, 커피색 하이퍼스트 누드 투우 팬티스타킹에서 분산염료가 각각 검출됐다.

신영스타킹의 '비너스', 굿지엔의 'BORAM', 파렌즈의 '페넬로페', 신세계 이마트의 '데이즈', 삼성테스코의 'Florence & Fred', 롯데마트의 'BASIC iCON'에서는 분산염료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과 내의류 제품에 대해 알레르기성 염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스타킹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염료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월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 | | | | | | | | | |
|--|--|---|--|---|--|--|---|---|---|
| 7급 종합반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9급 종합반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법원서기보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지방직 소빙직 (전문)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명품 '강력면담'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7·9급 검찰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9급 야간반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평일 9:00~12:00 (2개월 완성) | 농업직/기술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사회복지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부시관 (공무원)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8:00~21:00 (2개월 완성) |
|--|--|---|--|---|--|--|---|---|---|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주의!